

승려이면서 시인, 독립운동가로 한국 근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4회 만해축전이 2-5일 설악산 백담사에서 열렸다. 만해사상실천선언회와 강원도,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전에서는 만해의 삶과 사상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심포지엄과 시인학교, 전국고교생백일장,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1999년 만해축전 학술 심포지엄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만해의 삶에 대해 다루는 해방이후 발표된 만해 스님에 대한 연구논문은 400편이 넘는다. 학위 논문만 80여 편에 달하며 이 가운데 17편이 박사 학위 논문이다.

만해 스님의 문화와 불교 사상의 그 무엇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만

생명의 깊은 유대를 지시하고 상생의 삶을 추구하는 화엄적 생명공동체를 위한 미학적 초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문학

詩 속에 생명질서 회복 희구 절절 '일즉다' '법계연기' 자유의 다른 표현

해를 '읽게' 만드는 것일까?

만해 문학의 21세기적 의미' 심포지엄은 만해의 시에서 새로운 시대 가치를 발견했다. 이선이 교수(경희대)는 "만해 시가 다시 읽히는 것은 그 속에 생명 질서가 지닌 삶의 원리에 대한 천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만해 문학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만해의 시에는 우주생명의 동체적 관계성과 생명 본성인 사랑의 정신이 근간이 되어 생명 본연의 질서 회복에 대한 희구가 절절히 배어 있다"며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해 시가 내포하고 있는 생명 사상은

윤재용 교수(선문대)는 '《님의 침묵》에 나타난 자유는 본질적으로 누구로부터 빼앗기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나아가 찾아서 '보는' 것이다'며 "이런 적극적 자유주의가 《님의 침묵》의 빛나는 사상이자 미학을 생각해 보는 일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귀감이 될 만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 '《님의 침묵》속에서의 자유는 불교의 세계관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일즉다, 다즉일, 사사무애, 법계연기 등이 모두 자유의 다른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다시 보는 만해와 불교' 심

'만해'를 다시 읽는다

백담사에서 제4회 축전... 문학·불교사상 재조명



포지엄은 만해의 삶과 불교 사상이서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만해 불교의 이념과 그 현대적 의미"를 발표한 고명

불교

민중·생활불교 정신 계승돼야 독자적 근대철학으로 정립 위해 노력

수 교수(동원대)는 만해의 불교사상을 '돈오점오, 구세, 보살행, 민족, 민중, 독립, 이별, 분노와 눈물'이라는 키워드로 상징되는 '구세주의적 민중불교'로 파악한 뒤 "철저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으로 민중 속으로 다가가 구세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헌신적인 삶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만해의 민중불교, 참여 불교의 정신은 오늘에도 더욱 힘차게 계승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서재영 씨(동국대 강사) 씨는 '생활선을 주창한 선사'로서의 만해에 주목했다. 만

해는 자신의 생활선을 '활선(活禪)'과 '선외선(禪外禪)'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참선이 한적한 수행처에 앉아 불거진 재와 같은 적멸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인간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살아 있는 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씨는 "만해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수행을 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수행공간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시조학회 '시조문학 어울림 한마당'

문학 강좌·시조창 공연·자작시조 낭송

오늘의 시조학회(회장 윤금초)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이 협찬한 '시조문학 어울림 한마당'은 3일~4일 백담사 일대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이번 행사는 2002 만해축전에 참가하는 문인과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해 시조문학 강좌, 자작시조 낭송, 청소년 시조백일장, 시조창 공연, 시조문학인의 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가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작시조를 낭송하고 대화와 토론의 꽃을 피웠다.

시조문학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된 시조문학 강좌는 '비평가가 본 현대시조의 위상'(장경렬, 서울대 교수), '시조시인이 본 현대시조의 위상'(박기섭, 열린시조 편집위원), '현대사실시조의 역할'(김재현, 경기대 교수), '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윤금초, 경기대 겸임교수)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 시조의 멋과 여유를 한껏 뽐낸 시조창 공연 모습.

특히 한국정기원 박종순 원장과 회원들이 선보인 시조창 공연은 흥겨운 시조가락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창으로 단시조, 엮시조, 율음시조를 시연하여 쉽고 재미있게 우리 시조의 멋과 여유를 감상하고, 시조문학의 밤에서는 박시교, 장순하, 박기섭 시조시인 등 오늘의 시조학회 회원과 전국의 시조시인 지망생 및 시조백일장에 참

참시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선시대 사실시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실시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기섭 씨는 투철한 시대정신으로 당대의 삶과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고, 끊임없는 실험의식으로 새로운 시조문학을 개척하는 것만이 현대 시조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담사=강유신 기자

2002 만해축전 이모저모

◎만해 고교생 백일장
만해 고교생 백일장의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됐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200여명의 남고교생들이 문제를 겨룬 이번 백일장의 대상은 산문 '눈물로 양념한 국수'를 쓴 정유선양경기도 성남 수내고교이 받았다. 박양은 아버지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열린 종교'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서 "앞으로 남북간 동서간 대결 종식과 종교간의 평화를 위해 만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만해상 학술부문을 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시문학 부문을 신경림시인, 예술부문을 박찬수 목이박물관장이 수상했다. ◎시인학교·야단법석·미술전시 등 문화 한마당 민족문화작가회의의 강원지회가 주

강원릉 목사 "종교간 평화 위해 만해를 스승으로" 산문 '눈물로...' 정유선 양 백일장 대통령상 수상

가족의 극복기를 한 그릇의 국수이야기로 풀어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6회 만해상 3일 열린 제6회 만해상 시상식은 독특한 이력의 수상자들이 시상대에 올라 관심을 끌었다. 만해평화상 수상자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명예이사장 강원릉 목사는 "개신교 목사가 불교재단에서 주는 상을 받게 돼 얼떨떨하면서도 불교가

관하는 시인학교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소설가 조정래씨와 함께 하는 '작가와 대화', 시인 이근배 정희성씨가 이끄는 '시창작 강좌', 시인 고은·신경림씨가 '시 특강' 등이 진행됐으며, 매일 저녁 '야단법석', '노지백우(露地白牛)의 밤' 등 시 낭송과 미술전시, 노래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월정사 9층탑 옮겨 세웠을까?

현 지대석 아래서 새로운 보강시설 발견

12세기 땅 위에 10세기 탑... 확대 발굴 필요성

국보 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지대석 아래서 돌과 모래, 회를 섞은 하루 보강시설이 새로 발견되면서 이 탑에 대한 의문점이 늘어나고 있다.

▷한서대 발견 지대석은 탑의 일부?

지난 5월부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을 시굴조사해 온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문화부장)은 최근 현재 땅 위에 노출된 탑의 지대석 아랫부분이 다듬지 않은 요철로 되어 있고, 그 밑은 보강 시설이 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탑을 조성하면서 땅 위에 노출된 부분을 다듬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으므로 요철 부분까지는 흙으로 덮어놓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해 한서대에서 발견한 탑의 지대석은 현재의 지표면보다 75cm 아래에 있다. 시기가 같다면 사람이 밟고 다닌 지표면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 한서대에서 발견한 지대석은 탑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됐던 건축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탑의 남쪽 일부부분 파 본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지대석이 탑과 같은 팔각형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탑은 옮겨온 것일까? 그렇다면 언제?

조사단은 7월 24일 현장설명회에서 지금까지 탑의 일부라고 추정해 왔던 한서대 발견 지대석 아래 토층에서 12세기 동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술사학자들은 탑의 미술사적 양식을 10세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토층이 훼손되지 않고 시대별로 차곡 차곡 쌓여 있는 상태에서 12세기 동전이 발견된 땅 위에 탑이 서 있다는 것은 탑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의 하루 보강시설(점선 부분)이 새로 발견되면서 확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 선 때가 최소한 12세기 이후라는 것을 말한다. 한서대 발견 지대석이 탑의 일부가 아니라는 가정이 맞다면, 12세기 땅 위에 10세기 양식의 탑이 서 있다는 사실은 12세기에 탑을 옮겨왔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탑 주변에 대한 확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지도위원들도 하나같이 "너무 부분적인 발굴이라 딱히 단정할 수 없다. 확대 발굴을 해 봐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권형진 기자

문화 소식

불교 꽃꽂이 사진집 '향화청' 꽃으로 장엄된 사찰 담야

불교꽃꽂이 사진집 '향화청'이 나왔다. 예담꽃꽂이회 조양자 회장을 비롯 조봉애, 이경옥, 김경희, 박선자, 김두리씨 등 저마다 꽃꽂이회를 이끌고 있는 6명의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사찰의 곳곳을 꽃으로 장엄하여 사진으로 담았다.

대웅전 불단 뿐 아니라, 절 마당의 석등과 탑, 우물, 담장 위, 처마 끝에 이르기까지 참배객들의 눈길을 끄는 곳곳에 아름다운 꽃 공양을 올렸다. 전남 백양사, 강화 보문사, 서울 화계사 등 꽃이 있는 사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예담꽃꽂이회 조양자 회장을 비롯 조봉애, 이경옥, 김경희, 박선자, 김두리씨 등 저마다 꽃꽂이회를 이끌고 있는 6명의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사찰의 곳곳을 꽃으로 장엄하여 사진으로 담았다.

제1기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전수생 및 학인 모집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는 전수생 및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연수반(1년) 사울(목탁 요령, 태징, 북, 범고) 다루는 법,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사십구재 전과정)(정안식)
- 전수반(2년) 바라춤, 나비춤, 범고춤(전과정) ※ 전수반은 연수반 수료자거나 동등의 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함.

◆ 교수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 박일초 스님 직강

- 모집인원 : 00명 수시모집 (팩스접수 가능)
- 매주 강의 요일

연수반 : 월·수 (오후 3시 ~ 5시) 전수반 : 화·목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접수기간 : 2002년 8월 1일 부터 ~ 8월 24일까지
- 개강일자 : 2002년 8월 26일 오후 3시
- 본교는 초중과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전통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우리은행 120-188157-02-201 예금주 : 이 영 숙
- 서울시 강서구 영창동 272-8 다원빌딩 3층(강서보건소 옆)
- 전화 : 02)3665-0557 / 032)523-8067(인천) FAX : 02)3665-0546 / 032)523-8066 H·P : 011)788-2929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 나비춤, 서울전수관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장 박일초

순수한 경민주사로는 운장(스님) 범사의 생필(眞本) '五色판체'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성경 8종 명품 후면 당마그린 특민 양인 보급

100% 경민주사로는 반야성경 달마도

2000년 대종교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 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총자)

승적 소경하여 기적 고난 정복 영문 신기·영기 발하는 범자 달마 (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액과 좌단) 특민보시!

사업설계, 가정문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총인원 100% 호기

한국 수액회 명지 목사님 및 유사님에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 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아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8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써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징을 나타내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늘어납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볼레감이 해소됩니다.
- 관절염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면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통증에 눈물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주 체중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제형이 개선되며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은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주 체중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량과 약소포장 5원환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7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점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